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군복지개선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6일(목)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 복지 개선 대책 관련 업무보고

상정된 안건

1. 군 복지 개선 대책 관련 업무보고 2

(10시04분 개의)

○소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국방위원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우리 군인 여러분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여야 간의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정치권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국방위원회만큼은 군인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여야가 뜻 모으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군에 대한 복지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간부 지원율은 심각한 수준이고 경험 있는 중견간부들의 이탈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의 군복지개선소위가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군인들의 복지에 관해서만 논의를 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를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과 주거 지원, 의료복지 서비스, 자녀 교육 및 양육 여건 보장, 복무 여건 개선 등 오로지 우리 군인들의 복지만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야 간에 정치적 의견이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군 복지개선소위 안에서는 쟁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놓인 지상 과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군 복지 개선을 위한 각종 예산들을 충분히 담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여야와 집행부인 국방부가 힘을 모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 위원들과 예산 당국에서도 이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군 복지 개선을 위한 각종 예산들을 중점적으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지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여야 정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많은 협력 방안과 아이디어들이 우리 군복지소위원회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군 복지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국방부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회 국방차관은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 참석으로 김성준 인사복지실장과 관련 국·과장들께서 참석을 해 계십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 군 복지 개선 대책 관련 업무보고

(10시07분)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 복지 개선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성준 인사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지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시간도 좀 줄이고……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입니다.

군 복무여건 및 처우에 대한 획기적 개선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군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신설해 주신 성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은 간부 지원을 하락과 중견간부들의 이탈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간부들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아 간부들의 이탈이 심각한 상황임을 말씀하셨고 국정과제에 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복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강조하셨습니다.

추진목표입니다.

국방부는 군인의 사기가 곧 안보라는 인식하에 오고 싶고 계속 근무하고 싶은 군, 군 간부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군을 만들기 위해 복지 분야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군인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와 국방부의 주요 사업들을 근거로 경제적 보상, 주거, 의료, 군인 가족, 전직 지원과 복무 여건 개선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 복무에 걸맞은 합리적 경제적 보상입니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함으로, 숭고한 헌신에 걸맞도록 군 간부 보수를 획기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임간부는 중견기업 초임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해서 병장과의 보수 격차를 봉급 이전

의 수준인 180만 원 수준으로 회복하고 군 간부 지원을 유도하겠습니다. 중견간부는 유사 직종인 소방, 경찰과 중견기업 이상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해서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25년 3월 군인보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민간 유사 직종과 비교해서 군인의 보수 목표를 설정하고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군의 핵심 전문인력인 조종사, 잠수함 승조원, 군의관 등의 인력 유지를 위해 적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높은 근무 강도와 책임에 상응하도록 당직근무비를 인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군 주거 지원입니다. 간부의 자가 보유 지원을 위해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를 1인 1실 기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확보하겠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비를 현실화하고 깔끔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입주 청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시설 공사 등으로 간부숙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주택 임대자금(전월세)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군인의 의료 수요를 고려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간병원 진료비 확대와 정신과 응급진료체계를 마련하여 간부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격오지 군인 진료 여건 보장을 위해 원격진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상 군인에 대해서도 치료 의무조사 전역 보상 보훈신청 전 과정에 대한 통합지원팀을 신설해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군 가족으로서 자궁심 고취와 자녀 교육 및 양육 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군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군 가족에게 주거 소통 취업 재정 등 생활 전반적인 분야를 지원하겠습니다. 군인 자녀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단위 군인 자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하겠습니다. 학령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서비스와 대학생 장학금 및 진로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자 중심의 군 복지시설 환경개선과 문화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유연근무를 확대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역 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전직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 컨설팅,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방전직교육원의 업무 체계와 사업 개편 등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전역 예정 군인의 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인력 확보와 중견간부 이탈 방지를 위해 간부 복무 여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장기 복무 선발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우수 인력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인력구조로 전환하고 간부 지원을 향상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급 금액을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복무 유도를 위해 초급간부 적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부의 6개 분야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김 실장님, 중기 단기 이렇게 쪽 내놓으셨잖아요. 급여체계는 우리가 막 흔들 수 있는

게 못 된다고요. 그렇지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소위원장 성일종 공무원하고도 맞춰야 되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여서 내가 위원장으로서 고민했던 것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은 장기적으로, 아까 황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용역 같은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급한 것부터 우리가 좀 뽑자 그리고 그것부터 눈에 띄게 좀 개선을 시켜 보자. 우선 피부에 와닿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든다면 수당이 있는데 군 핵심 전문인력 유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수당 지급, 조종사, 잠수함 승조원, 군의관, 사이버 전문인력—잠수함 승조원은 많이 올랐는데—이라고 한다면 뽑은 게 얼마예요? 얼마 정도 생각해서 뽑았어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저희들이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게……

일단 회전익 조종사 연장복무 장려수당 32억이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수상함 함정근무 수당 23억 그다음에 항공수당 2억 이렇게 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현재 대략한 60억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사이버 인력까지 포함해서?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사이버 인력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당직근무는 지금 얼마나 가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저희들이 봤을 때 당직근무는 현재 올해 기준으로 보면 평일이 2만 원 그다음에 주말이 4만 원인데 지금 기재부의 안은 휴일이 현재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소방이라든지 경찰처럼 휴일에도 10만 원, 그러니까 정부안 6만 원에서 10만 원 소요가 290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90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290억이 1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그렇습니다.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지금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구하는 게…… 지금 이렇게 보고하면 위원들도 혼란이 와. 단기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몇 명에게 혜택인데 지금 일반 공무원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290억이면 290억 이 부분을 이번에 꼭 반영을 해 달라든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하면 몰라.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뽑은 거로는, 국회에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한 1200억 정도면……

○소위원장 성일종 1200억이 그게 쉬워? 뭘 그렇게 쉽게 막 얘기를 해,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제일 급한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위원님들, 양 간사님하고 특히 임종득 위원님이 이 부분을 잘 아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당직 서고 휴일 서는 것을 일반 공무원보다 못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뽑은 다음에 관철할 것 한두 개라도 확실하게 이번에 관철을 시켜 보자. 예산 당국도 계속 돈을 다 줄 수

는 없거든. 그러니 이 부분을 장기는 장기대로 국방부한테 어떻게 주문할 건지 이것을 한번 상의하시지요.

황희 위원님.

○**황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국방부가, 그러니까 논의에 들어가면 위원들끼리는 단기적인 이야기도 할 것 같고 중장기적인 이야기도 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보고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당장이라도 단기에 처리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부터 해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중장기라고 해 봤자 10년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단기보다 조금 더 장기화해서 할 부분들은 오히려 스케줄하고 예산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위원님들 논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확정되면 중장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스케줄하고 예산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전략적으로 저희가 표적화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임 위원님.

○**임종득 위원** 오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과연 우리 복지소위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제기돼 왔던 우리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냥 망라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든 논의가 될 내용인데 그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초급간부, 중견간부의 이탈 현상이나 지원하지 않는 현상들이 해결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황희 위원께서 국정감사 때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셨듯이 신국방개혁 개념에서 마스터플랜을 그려야 돼요. 마스터플랜을 그리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야만 처방이 제대로 나오는데 이건 맨날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종합해 놓은 상태에서 과연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겠느냐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합니다.

육해공군, 해병대가 있지만 특히 육군과 해병대의 경우는 경계 개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처우가 좋아진다고 초급간부들이 오고 또 오래 근무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근무 여건과 관련된 부분들의 근본적인 변화들도 같이 고려되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것이 고려되어질 때 여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그라미 해 가지고 한 열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각각을 별도로 해결하겠다고 했을 때 모순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격오지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시설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축선별로 민군 복합타운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 투자할 겁니까? 예산의 낭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분석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개념을 잡아 가지고 쪽 하면서 큰 그림 속에서 단기적으로 조치해야 될 것들 우선순위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중복 투자라든가 잘못된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단순히 올해 예산하는 데 반영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 분석부터 해야 돼요. 용역을 주고 원인을 분석해서 목표와 마스터플랜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것들이 돼야 된다.

지금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한 열 가지 정도의 과제를 제가 종합해서 봤을 때 육군과 해병대의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군 복합타운이 안 되면 다 의미 없어요, 자녀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 주거지의 문제, 자기 발전의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복지개선소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핀포인트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그게 가장 저는 급선무라고 보여져요. 다 인식은 같잖아요. 임종득 위원님 말씀처럼 인식은 다 같기 때문에 어떻게 이번 소위에서 복지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당장에 내년도 증액 사업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예산소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증액 의견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가장 시급한 거.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느 선까지, 금액이 어느 정도고 이런 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이사화물비 현실화 이런 것들이 중기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당장에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년도 예산 증액을 위한 국방부와 복지개선소위에서 전략적으로 핀포인트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논의하면서 뽑아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말씀만 더 붙이면 실질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마스터플랜과 연계가 되겠지요. 마스터 플랜과 연계가 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항목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면 또 그거에 따른……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제도 정비를 통해서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도개선을 통해서, 당장은 돈은 안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다치게 되면 의무조사위원회를 3개월 이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대령이 있다면 국방부령이 있다면 시행령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더 늘리느냐. 군에서 다쳤는데 지금은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1년 동안, 지난번에 살펴보니 1년 범위 내에서 그 조사를 보류할 수 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0조 이런 것들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군에서 다쳤기 때문에 조금 더 현역부적합 심의로 넘기지 않고 조금 더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제도 개선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인사, 이게 저는 충격을 받은 건데 강대식 위원이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거를 제가 강대식 위원님의 질의서를 받아서 다시 한번 질의한 게 있어요.

인사와 관련해서 진급이 가장 핵심이겠지요. GP, GOP에 근무하고 있는 소령들이 중령으로 진급 대상이 한 4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로예요. 그래서 인사 시스템의 개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복지로 오는 거거든요. 내가 전방 근무 GP나 GOP에서 근무했더니 중령 진급률이, 중령을 달 수 있다더라든지……

그래서 저는 예산과 제도와 인사 그거를 내년도 예산에 긴급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제도 정비 그다음에 인사 시스템 개선 이 세 가지만 이 소위에서 논의 해서 올려도 상당한 실적을 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복지가 개선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강대식 위원 내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방금 부승찬 간사님 말씀하신 인사 문제라든지 좀 전에 임종득 위원님이 제기하신 수당이나, 돈만 올린다고 해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그게 개선이 될까라는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황희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오늘 보고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교 문제라든지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제기하다 보니까 결국 오늘 참 의미 있는 소위가 구성된 이런 자리까지 온 겁니다.

국방위 위원님들께서 하나같이 이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장 다음 주에 예산소위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산소위 위원장으로서 오늘 보고를 받고 답답함을 느낀 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10억을 요구했는데 한 3억이라도 태워져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몇억을 증액시키는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예산을 약간 삭감을 하더라도 하는데, 제로베이스에서 0원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새롭게 우리가 거기에 얼마씩 넣는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국방위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결위 넘어가서 상당한 이견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전체 액수를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는데 과연 그 예산이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그게 실제로 아주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런 것은 있어요. 최대 얼마에서 최소 얼마까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음 주까지, 오늘 보고 내용 중에 중장기는 조금 그렇더라도 단기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꼭 내년부터 바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해야 될 어떤 그런 게 있다면…… 무조건 내가 예를 들어 32억이다, 이백몇십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최대 맥시멈하고 미니멈을 딱 이렇게 잘라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선까지는 최대한 돼야만 그나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안에 대해서 차후적으로 맞춰 나갈 수 있는 그 금액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달라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저는 군 간부 복무 여건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이 문제들은 국회하고 정부하고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때까지 특히 기재부가 조그마한 것도 흔들어 쫓겨 가지고 올해도 예산 전체로 보면 신규 사업은 거의 100%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실정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증액 문제도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기재부가 최종 승인을 그렇게 해 주느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올리는데,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하고 지금 계시는 분들이 같이 힘을 써

야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군 간부 복무 여건, 처우가 개선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를 삼고 있는 이 간부 지원율 제고하고 중견간부 이탈 문제를 일소할 수 있느냐. 여태까지 이거에 대한 예산은 계속 연차별로 증액시켜 왔습니다. 왔는데, 이탈하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 간부 수급 문제 이런 거는 점점 예산은 증액된 반면에 이탈은 점점 더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강대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거를 그러면 무슨 근본적인 해결책, 무슨 근본적인 이유, 연유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고민을 해 봤나. 좀 전에 임종득 위원님이 나 또 위원님이 계속……

용역 한번 실시해 봤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복무 처우 개선하고 간부 지원율 제고 및 중견 간부 이탈 방지에 대한 용역 그런 거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했습니다. 최근에도 했습니다.

○강대식 위원 최근에도 했습니까?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강대식 위원 그 자료를 다음 주에 예산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고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두 번째는 현재 시대적·사회적 변화가 이렇게 많이 급변이 이루어지는 데 젊은이들의 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변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용역들은 또 혹시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그것도 제 기억에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있어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강대식 위원 그것도 한번 해 가지고 다음 주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걸 보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알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지금 정부가 나아가고 있는 어떤 방향하고 국방부장관께서 늘 이야기하는 50만 대군하고 AI 용사들 이거 하는 부분들의 국방개혁을 위해서라도 이거 이번에 근본적인 문제 인식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사상누각이다, 절대 저는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로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위기감이라든가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번 기회에라도 첫 단추를 잘 꿰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일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쪽 나열해 놓은 게 그냥 슈퍼마켓에, 어디 점포에 파는 식으로 나열해 놓은 상품처럼 이게 아니라 여기에 오늘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이 중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안 그러면 단기적으로든 어떤 성과가 있고 또 그 성과가 있어야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처우가 개선되고 이탈이 덜 되고 지원이 계속되고, 이 선순환 구조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고 하나 던져 놓고……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저도 빨리 하고 저도 가야 됩니다.

○강선영 위원 저도 운영위로 가야 돼서……

○강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간단히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강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뭘 말씀 드리고 싶다면 지금 여기에는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돼 있는데 제가 부서관 세미나를 한번 해 보니까, 지난번에 박선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부서관들의 직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장교들하고 문제가 되는데, 박선원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에 제가 동의했어요. 전역할 때도 장교들 명예 전역하듯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나면 조종사 준위들이 전역하면 군에 들어올 때 6급이기 때문에 제가 한시적으로 기술특수직으로 해서 5급 군무원으로 채용했거든요. 그랬더니 소령으로 나간 애들이 또 그걸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5급 직위에 6급 준위가 지원할 수 있게 해 줬더니 그 자리에 준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5급 소령들이 그 직위에 못 들어가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 지금 국방부에서 낮추고 있어요. 왜냐? 5급으로라도 준사관들을 받아야 훨씬, 우리가 유출했을 때 인력을 유지하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계급 간에 상충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전역 예정 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전직 지원이 있는데 문제는 현역일 때는 국방부에서 하고 전직 지원까지만 하는데 그 이후의 삶, 군 복무를 한 이후의 삶, 보훈에 대한 부분은 국방위가 아니고 정무위입니다. 과거에 보훈처가 차관이고 총리실에 있을 때는 그것을 정무위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여당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훈하고 현재가 연결이 안 되면 단절되거든요. 그래서 보훈이 우리 국방위로 와야, 현역일 때와 전직하고 예비역으로 나가서 그다음에 참전 군인들까지 아우르는 군에 복무한 사람들에 대한 전 생애주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여기서 한번 의논하시고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지난번에 월남전 참전 용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묶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죄송합니다만 운영위로 이석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가세요. 빨리 가세요.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하시고.

○박선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선원입니다.

오늘 정보위 경찰청 국감이 있어 가지고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요 강대식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지만 그래도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 협력을 해서 이런 소위가 만들어지고, 소위가 만들어지니까 그래도 이렇게 망라를 해 봤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의 복지 관련 분들이 다 오서 가지고 한자리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큰 그림이 있으면 좋지만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단기로 돼 있는 것 있잖아요, 단기. 지금 빨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적어도 국방부에서 예산 안 태우면 아까 강대식 간사님 말씀대로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목을 태워야, 일단 100만 원을 태우든 1억을 태우든 태워야 그게 늘려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다음 11일까지 예결위에서 경제 관련은 받아요. 하다못해 서면질의로 받아서 그것 가지고 예결위 아닌 위원들이 질문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대신 질문해 주는 거예요, 다른 예결위원들이. 경제 관계는 11일까지 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비경제 관계 부처들 있잖아요, 그것은 다음 주 13일을 목표로 삼고. 단기로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항목이라도 설정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5억만 태워 달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이라도 태워 달라고 하든지.

그리고 우리 국방부 예산이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그중에 어떤 것은 항목 조정을 해서 어떤 것이 10억이다 그러면 8억 그다음에 항 추가해서 2억으로 다시 태워 달라고 하든지 그걸 빨리해야 돼요. 이해하시잖아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이해합니다.

○박선원 위원 우리 냉정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앞에 네 분도 마찬가지로—미안해요—투 스타 이상이면 장병 복지에 관심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인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자신들이 집중해야 될 업무 순위가 있다고.

○임종득 위원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박선원 위원 아니, 임종득 위원…… 그렇다고.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날마다 일해야 되고, 장관님 다른 행사 가셔야 되고 전력해야 되고, 차관님 전체 살림 살다 보면 간부 특히 하급간부 이하에 대한 처우나 복지에 대해서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이번 소위에 위원장이 직접, 성일종 위원장님이 직접 주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사업부터 해 달라 그런 것, 그다음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달라, 저희는 도와 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황희 위원 저도 아까 의견을 내지 않아 가지고……

○소위원장 성일종 예, 장관님.

○황희 위원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의미 있고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여야 간에 갈등도 심하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국방위 군복지소위가, 국민들이 보기에 여야 간에 안 좋은 모습만 늘 보이다가 정말로 이 분야로 인해서 뭔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도 보일 수 있고 계엄 이후에 대국민 신뢰가 떨어진 군에 대한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원래 우리 군이 국민 신뢰도가 1위였거든요. 그런 군의 신뢰를 국방 위상에 걸맞게 해 주는 거라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니까 잘 정리를 하셨어요. 상당히 고민한 부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저는 몇 가지만 조금 저희가 협의하고 합의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당부를 드리는 게 급여 관련해서는—동종 직군 이것 제가

발의한 법안이거든요—이것 할 때 군 직군이 다른 일반 공무원하고 좀 다르잖아요, 일반 사회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는 기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율이 처음 잘못돼 버리면 그다음부터 다 잘못되는 거니까 이것은 반드시 최소한 여기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시고 협의를 하시고 근거가 명확하게, 해외 사례도 좀 보시고 그래서 맨 처음에 저율을 잘 설계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국방부 내에서 불합리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전체적인 계산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비라든가, 가령 교복은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사는 두 번 보내면서 교복비는 한 번밖에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사는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보통 대충 보면 한 150만 원 더 들더라고요. 수당 3만 원 올리고 4만 원 올리면 뭐 합니까, 1년에 한방에 150만 원씩 드는데. 그리고 전세자금도 그렇고, 전세자금 이자 같은 것은 2년 내내 있으면 되는데 1년 반 있다가 또 발령을 내 버리면 나머지 받은…… 어쨌든 개인 비용이 좀 들어가요. 집 알아보는 것도 그렇고, 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안 해 주더라.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지출되는, 이게 자잘한 비용이지만 모아 보면 크거든요. 그런데 이것 어디 가 가지고 장교 부사관 입장에서 어디다 대놓고 얘기 하기도 참 입장 곤란하단 말이에요, 당장 급하니까. 그래서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지출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평균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 방에서는 군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한 제정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몇 가지 대안을 내놓으셨지만 해외 사례, 미국 사례 한번 보세요. 미국 사례 보시고 이게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은 철저하게 수요자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있어야 된다. 이것 하나로 군에 있겠다 없겠다, 이걸 형편 없더라고요. 군인 입장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90% 이상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반 한 60%가 이것 때문에 나 그만둘 수도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 이렇게 하고.

주거 관련해서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는데 국방부하고 각 군하고 관리 체계가 연계성이 떨어져요. 국방부는 잘하고 있는데 관리를 하는데 이게 각 군에 가면 없어요, 그 부서가, 관리 단위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설계를 잘하고 계획을 잘해도 각 군에서 이걸 관리감독하고 유지보수할 이런 단위가 없기 때문에 이 체계가, 그러니까 심장에서 피가 대충 위까지는 가는데 저 손끝 발끝까지는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체계를 설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양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군 토지 관련해 가지고 민간개발 유도해 가지고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 있잖아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왜 오로지 군인만 군 토지에 해야 되냐 이게 좀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체부나 기재부나 이런 데는 꼭 그 사람들이 토지 사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유지를 얼마든지, 군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국토위원들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 협업 사안으로 일반 국유지에도 민간개발을 해 가지고 군인에게 상당 부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민간개발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특히 LH나, 이것은 국토위하고 저희 위원 단위에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후화된 주택도 많잖아요, 아직 공급도 안 되는 1만 세대 정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군인 가정이 주거를 하게 되면 최소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표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충족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도 30년 노후화되면 재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안에 쓰는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아니면 물건이라든가 어플라이언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충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인식의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군인 하면 싸움하는 사람이지만 생활하는 가장입니다. 그렇게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군인 하면, 군인이면서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대접을 해 줘야지요. 그다음에 특히 사병은 징병제지만 부사관부터는 모병제기 때문에 모병제로서 대우해야지. 아니, 돈 주고 일한 만큼 대우해 줘야지. 군은 신성한 의무고 국방을 지키고 분단된 국가니까 이 국가를 지키는 게 신성한 것 아니냐라고 배우면 안 된다. 그렇게 인식의 전환도 국방부에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김 실장님, 오늘 자료 갖고 왔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걸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갑자기 나오라고 그러니까 거기도 준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다 갖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여기가 예산소위의 역할을 침범해서는 안 돼요. 예산소위는 예산소위 나름대로 정부안과 넣을 것을 다 넣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특위를 급하게 만든 이유는 뭐냐. 예결위원장도 만나고 양당 간사도 만나고 부총리도 만날 거예요. 차관, 예산실장까지 만날 거예요, 내가.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소위는 예산소위대로 국회에 있는 시스템이니까 돌아가지만 ‘이것 급하다, 이것 안 해 주면 군 무너진다’ 가서 그 다급함을 얘기하려고 이것을 만든 거예요. 중기·장기는 그쪽에서 잘 고민해요. 알았지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소위원장 성일종 그리고 중장기를 위원님들이 요구할 거예요. 정부가 잘 준비가 돼 있어야 예산 당국하고 길게 협의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니까 당장 다음 연도 1월 달부터, 2개월 뒤부터 이에 관련된 예산 일부라도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예산소위에서 심의해 가지고 올라간들 그냥 이게 레굴러하고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래서 그냥 또 넘어갈 거예요. 예산소위는 예산소위대로 세게 해서 올리고, 다행히 여기 임종득 위원님하고 한기호 위원님이 들어가시니까 잘됐다고요. 특별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뛰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것 뭐 하러 해, 이 회의를.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절절하게 필요한 게 뭐냐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돼, 구체적으로.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예요, 김 실장님?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처우 개선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국방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게 14개 분야로 해 가지고 약 1200억 원 정도 요구를 하는데 제일 급한 게 당직근무비를 인상하는 겁니다.

- 소위원장 성일종 좋아. 당직근무비지요?
-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290억입니다.
- 소위원장 성일종 290억이지요?
-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 소위원장 성일종 이게 일반 공무원하고 얼마만큼 차이 나요?
-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현재의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평일은 똑같이 됐습니다.
- 소위원장 성일종 평일은 됐고.
-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그런데 휴일이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추가로.
-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일반 공무원 10만 원씩 줘요?
-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군인은 6만 원 준다 이거지?
-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성일종 그게 계산한 게 290억이지요?
-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 소위원장 성일종 이것 담당이 누구야?
-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저입니다.
- 소위원장 성일종 유균혜 국장, 기재부 가 가지고 누구누구 만났어요? 몇 번 만났어요?
-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사실은 일반직공무원 수준으로의 상향이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 가서 설명을 드렸고 기재부 담당 국장을 만났습니다.
- 소위원장 성일종 기재부 누구, 어느 국장이야?
-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저희 국방예산심의관이 있습니다.
- 소위원장 성일종 이름이 뭐야?
-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제가 바뀌기 전에 국장을 만나고 실제로는 3만 원, 6만 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바뀐 이후에 국장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바뀐 이후에 국장은 사실 이미 정부안이 확정된 뒤라 저희가……
- 소위원장 성일종 밑에 사무관 누구야?
-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사무관은 저희가 병영정책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성일종 아니……
-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담당은 중령입니다.
- 소위원장 성일종 아니, 기재부의 담당 사무관이 누구야?
-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제가 기재부 담당 사무관은 직접 만나지는 않고……
- 소위원장 성일종 과장은 누구야?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과장은 여성 과장이었는데 지금은 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바뀌었으면 가야 되고, 사무관이면 사무관, 과장 다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 계층에 맞게 가서 설명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틀려?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예, 제가……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일을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서류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국회에 우리 보고했다. 나 공직자로서 일 다 했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다급하면 의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기재부 좀 폭격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 가지고 사무관부터 과장부터 국장까지 만나고 바뀌었으면 또 가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그러니 위원장 좀 한번 만나 달라든지 여기 위원들 보고 좀 전화를 한 통 해 달라든지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했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유균혜 국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들 다 해당해.

했어요, 안 했어요, 김 실장님? 했어, 안 했어?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안 했잖아요, 지금. 290억만 넘겨 달라고 그냥 이 어젠다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과장하고 국장 예결위 와 있는데 여기 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마 못 빠지는 것 같은데.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가서 사무관부터 국장, 예산실장까지 만나고 그 결과를 나한테 갖고 와요. 그래야 일이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말이야, 가서 ‘이것 일반 공무원하고 틀립니다’ 해 가지고 이것 갖다가 툭 던져 놓고 설명 한번 해 놓고 여러분들이 일 다 했다고 온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군 복지를 책임져야 되는 최전선에 있는 국방부의 책임자 아니야?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말이야, 이것 일 다 한 것처럼 말이지. 이러니까……

아니, 이 예산을 태워야 되는 당국자도 절절하게 와서 설명을 안 매달리고 서류 하나 던지고 가고 한두 번 설명하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절절합니까?

데이터는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어떤 데이터 말씀하시는……

○소위원장 성일종 다른 부처에 10만 원씩 다 주는데 여기 지금 우리 군인들은 못 주고 있다, 그 데이터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다 가지고 와요, 그것.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소위원장 성일종 지금부터 오더할게. 여러분들 그 기재부 사무관 담당하는 사람 누구야, 뒤에? 유 국장이 국장을 만나야지 사무관까지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이 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이 당직근무에 관련돼서. 과장은 누구예요, 국방부 과장?

○국방부계획예산관직무대리 김종덕 국방부 예산편성과장입니다.

지금 기재부 담당 국방예산과장은 박진호 과장이고 당직비 담당 박준영 사무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파트너지요?

○국방부계획예산관직무대리 김종덕 예, 저는 수시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언제 만날 거야?

○국방부계획예산관직무대리 김종덕 오늘도 만나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오늘 만나 가지고 국회에서 난리 친 것을 얘기를 해요.

○국방부계획예산관직무대리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리고 가 가지고 만나서 그 사람 어떤 반응인지를 가지고 와.

○국방부계획예산관직무대리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아셨지요? 양당 간사님한테 보고해요.

○국방부계획예산관직무대리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리고 지금 제일 급한 게 국방부의 290억이예요?

○국방부계획예산관직무대리 김종덕 저희가 당직근무비와 이사화물비를 1·2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생각을 해봐요, 똑같이 공직자로서 당직 서는데 어디는 10만 원 받고, 군인은 왜 6만 원 받냐.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국방부계획예산관직무대리 김종덕 올해까지도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인데 정부안에 조금 오른 게 이제 3만 원……

○소위원장 성일종 아니, 이렇게 불평등하게 일반 공무원은 10만 원 받았고 군인은 6만 원 받았잖아요. 올해 오른 게 5, 6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불평등이 언제부터 그랬냐고.

○국방부계획예산관직무대리 김종덕 군인 당직비가 처음 생길 때부터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군인 당직비가 2012년에 처음 생겼는데 그전에는 아예 주지를 않았었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니까 이것을 말아야, 이것은 나는 국방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봐. 여러분들이 군인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어. 왜 그동안 이것 방치해 왔나?

여러분들은 당직근무비 얼마 받아요, 진짜?

○국방부계획예산관직무대리 김종덕 국방부 공무원은……

○소위원장 성일종 본부의 여러분 10만 원 받지?

○국방부계획예산관직무대리 김종덕 저희도 6만 원까지 받다가, 휴일 6만 원 받다가 올해 8월부터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여러분 8월부터 받으면서 저 밑에는 6만 원 받으면 되냐?

○국방부계획예산관직무대리 김종덕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떠들어 보면 떠들어 볼수록 화가 나잖아, 지금.

우선 급한 것, 당직비부터 해결합시다. 가 가지고……

실장님, 실장님이 뛰어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리고 사무관은 사무관이 만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비상사태니

까 실장님이 사무관 과장까지 같이 가서 다, 먼저 보내고 또 한 번 가고 이렇게 설득을 해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해 가지고 부총리한테도 우리가 다 의견 전달하고 내가 따로 만날게. 그래야, 뭘 하나라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우리는,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을 혼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협의하는 부처의 창구이기 때문에.

또 이 290억을 서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갖고 오세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황희 위원 2차관한테는 제가 얘기할게요.

○소위원장 성일종 예, 그러세요. 차관님 하고, 내가 부총리 얘기하고 차관도 얘기하고 예산실장 불러서 다 얘기할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만나라는 말이에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김에 290억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14개 항목, 1200억 한 장씩 전부 다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도와주십시오.

○소위원장 성일종 1200억을 지금 어떻게 다 넣겠어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대신에 우선순위를 짚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번 받아 보시고……

○소위원장 성일종 좋아, 좋아. 290이 제일 급하다는 거지?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소위원장 성일종 그다음 급한 것 뭐예요, 두 번째가?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이사화물비입니다. 263억입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263억이 어떤 거예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이사화물비입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이사화물, 오케이.

지금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돼. 기재부는 내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그 사람들이 다 들어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안 들어줍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니까 이것을 못 했지.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차라리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논리적인 접근이 안 되면 거기는 안 듣는 거예요. 이사를 하는데 일반 공무원들에 주는 게 얼마야?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어떤 것 말씀하시는……

○소위원장 성일종 일반 공무원 이사할 때 돈 줘요, 안 줘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이사가 갖지 않기 때문에 주로 병무청이나 법무부 정도에 반영돼 있고요. 국방부도 실비로 해서 주는데 어느 정도 한계선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왜 일반 공무원도 경찰공무원 이런 데 발령 자주 나잖아.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소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거기는 이사 비용이 아예 없어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있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거기는 얼마예요, 경찰은?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그것은 제가……

○국방부계획예산관직무대리 김종덕 예산편성과장이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군인처럼 자주 이사를 하지는 않지만 일반 공무원 이사비는 500만 원 이하에서 실비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이 들면 300만 원 다 주고 있는데 사다리차까지도 다 있는데 군인은 거리 기준, 부양가족, 단독 이사냐 가족 이사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 보니까 실비의 대략 한 60%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 이사 비용이 10층에서 8층 가도 똑같아요. 거리로 따지면 안 돼.

○소위원장 성일종 같은 집에서 이사 비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것은. 그런데 거리적으로 이동할 때는 그것은 국가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건 특수하니까 이것은 좀 고민…… 이게 아까 얼마라 그러셨지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263억입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263억.

○황희 위원 위원장님, 요즘 같은 아파트에서 10층에서 8층으로 이사하잖아요, 이사 비용이 거의 95% 이상 똑같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것까지는 할 수 없지 않지요, 우리가?

○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삿짐센터한테 맡길 때 거리로 따지면 안 된다고요.

○소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그렇게 하지요. 이 두 가지만 이번에 핵심적으로 밀어 보지요.

○부승찬 위원 일단 갖고 오면……

○강대식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최선책, 차선책, 차차선책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2, 3, 4, 이래 가지고……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14순위까지 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2번이 안 되면 3번을 올리고 이런 걸 해야지, 이것 2개 딱 해봐도 이것도 안 돼 버리면 어떡한대요.

○소위원장 성일종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볼 때는 핵심으로 잡아 가지고 한두 가지 넣기도 어려워.

○부승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강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받아 보지요.

○황희 위원 위원장님, 수당을 아무리 올려 봤자……

○소위원장 성일종 자료는 그렇게 다 준비를 해 줘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사 비용. 또 세 번째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세 번째는 직접경비로서, 저희가 시간수당을 대위가 많이 받으니까 소령하고 역전이 된다 그래서 보전해 주기 위해서 소령한테 직책특별업무비를 지금 1인당 7만 원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신설하는 안입니다. 그 소요가 100억입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1인당, 만약 한 사람 한 소령한테 얼마 가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월 7만 원입니다.

○강대식 위원 월 7만 원?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강대식 위원 월 7만 원 줘 가지고 대위하고 소령하고 역전이 됩니까?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지금 소령 같은 경우는 시간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에 본봉의 9% 수준의 관리업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봉이 500만 원이면 월 4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직책별 특정업무경비를 신설해 주면 10만 원은 추가되니까 55만 원이고,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관리업무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9%를 좀 더 추가적으로 또 나중에 인상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역전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중령하고 또 역전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임종득 위원 중령하고 역전되는 것 아니냐고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그것을 고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령도 직책수당을, 관리업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김 실장님, 이 부분은 연구한 게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에서? 이것은 저번에 국감에서도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 다 나왔었잖아.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아마 그게 검토하면서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 금액은 얼마야, 세 번째 지금 얘기한?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100억입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국방부는 워낙 크니까 한번 했다 그러면 몇십억이 아니고 다 그양……

○강대식 위원 인원수가 많잖아.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니까.

또 네 번째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지금 현재 보면 5년 차 미만 간부들한테는 전월세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친구들을, 초급간부를 유인하려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월세금을 5년 미만에도 지급하기 위해서 한 30 해서 한 68억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게.

○소위원장 성일종 아니, 네 번째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지금 초급간부들한테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사를 지급해야 되는데 관사가 없을 경우에는……

○소위원장 성일종 공짜로 주는 거예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시설국장 보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자금 이자 지원은 관사 입주 대상자한테만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간부숙소가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부숙소 부족분을 전세자금 이자 지원이라도 해서 해소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법상 이게 간부숙소 대상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11월 소위에 이 법안도 올라가 있고, 저희가 이것 한 1100명 정도 간부숙소 대상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68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만약에 액수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10억 이라도 증액이 되면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으로 내부 자격 기준을 개선해 나가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이게 초급간부예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간부 5년 차 미만 초급간부 대상.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그러니까 대부분 초급간부입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이것 1번으로 끌어올려, 이놈을. 그렇잖아요. 초급간부가 전세자금 얻는데 그것은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것 1번으로 끌어올려.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지금 제가 추가 보고드리면 지금 초급간부는 간부숙소를 제공받거나 주택수당 16만 원을 받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아니, 일에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우리가 지금 초급간부들 어려워하니까 이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중령이나 이런 것보다.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번으로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이것 1번으로 끌어올려서 이것하고……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다음에 내가 볼 때 당직근무는 주로 초급장교들이 당직을 많이 설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부사관도 같이 해서, 초급간부도 많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부사관도 서고.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순서는 국방부가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초급간부들 전월세 지원하는 것은 제일 급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을 1번으로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이것에 대한 정리를 잘해 줘요. 알았지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소위원장 성일종 또 그러면 다섯 번째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다섯 번째는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격년으로 해서 건강종합검진비를 연도별로 30만 원씩 지급하자 그런 신설안입니다. 약 52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지금 장기근속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 이런 것 안 해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장기근속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격년별로, 자기 생년월일이 짝수면 짝수년도, 홀수면 홀수년도에 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수 분야별로, 암 진단이라든지 추가하는 것은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개개인들이 내야 되는 비용이 있거든요.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도 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군인만 이것을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암 진단 이런 추가 같은 경우 하는 데 장기근속자한테 30만 원을 주자면서?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일반 공무원은 이것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국방부계획예산관직무대리 김종덕 일반 공무원은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군인만 못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나, 이것? 군인은 공무원 아닌가?

○황희 위원 공무원 취급을 못 받고 있다니까.

○소위원장 성일종 이게 52억?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이것 금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도 부담되는데……

○황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예산이 작년보다 6조가 올라갔어요. 저는 이것 국방부가 조금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방비가 6조가 올라갔는데 1000억 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 못 해 가지고 여기 와서 ‘받아 주십시오’…… 아니, 이러면 국방부 그 안에서, 6조가 올라갔는데 1000억을 해결 못 해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위원님, 덩치는 큰데요 그게 다 쓰임새가 있어 가지고 오하려 국방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아니, 지금 나는 황 장관님 말씀이 맞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다섯 개까지만 합시다. 뒤의 것 보고받지 말자고. 이것 받으면 위원들 혼란스러워, 나를 비롯해서. 다 할 수도 없는 건데 괜히 받아 가지고 기대감 줄 것 없어. 다섯 개까지만 딱 하고……

지금부터, 실장님!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소위원장 성일종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었지?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면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방비가 8.2% 올라가지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소위원장 성일종 8.2% 올라가는데 어디 어디 올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황 위원님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8.2% 올라가는데 이런 것을 올려야지, 다른 데 올리고 지금 이것은 급한 것을 안 올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다른 데 좀 깎을 데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예결소위에서 할 일이야. 그런데 넘긴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으면 그 안을 찾아봐서 항목을 조정할 수도 있는 건데……

○강대식 위원 깎을 것 많습니다.

○황희 위원 아니, 본인들이 이것을 후순위로 배치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불멘소리하면 뭐 해요? 6조 중에 1000억이 뭐예요, 6조 중에 1000억이?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기재부에 요구를 했는데, 우선순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된 게 주 이유입니다.

○황희 위원 아니, 기재부 핑계 대시면 안 되는 게 저도 장관을 해 봤습니다. 예산이 6조가 올라갔는데 1000억을 기재부 설득 못 시키는 것 그것은 국방부 문제예요. 내부에서 합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거나?

○소위원장 성일종 그러니까 장관님, 저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올라간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좀 해 봤는데 안 되니까 조정해서 할 생각은 아예 없

었던 것이고 그것 또 내놓으라는 거잖아,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기재부는 그러니까 총액도 컨트롤을 하지만 그 내역도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총액과 관계없이 그 내역이 아니면, 예를 들면 인건비성 경비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반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실장님!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강대식 위원 또 어떤 국방부 직원 이야기 들어 보면 국방부 예산은 총괄로 내려 주면 너희가 알아서 편성하라 이런 식으로도 한다던데?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강대식 위원 어제 또 내 방에 와서 설명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황희 위원 이것은 기재부랑 협상을 잘못된 거예요.

○소위원장 성일종 맞는 얘기가, 장관님 얘기가 맞는 얘기라고.

○강대식 위원 자꾸 뒤로 돌아갈 필요는 없고 빨리 좀 해 가지고 빨리 끝내는데, 여기 항목이 다 올라갔다고 해서 다 통과된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우선순위를 우리가 책정을 해서, 전체 예산을 보니까 불요불급한 것 빼고 예산 삭감할 부분들도 상당히 참 많더라고요, 내가 아직까지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실장님이 올려 달라고 한 만큼보다 더 삭감될 수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 삭감 부분은 좋아하겠지, 기재부에서. 우리가 삭감해서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00억이 필요하다. 우리가 1500억 삭감해 가지고 '1200억 올려 줘. 그래도 전체 금액에서는 300억이 너희 이득 아니냐'라고 숫자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1200억이 필요한데 1500억을 삭감시켜 가지고 1200억을 여기에 반영을 하고 300억 남겨 가지고 저 기재부에 주더라도 개네들이 '좋다. 그러면 그리하라' 이렇게 하겠어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방위력개선비 1조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1000억하고 가면 기재부는 1000억을 반영 안 해 줍니다.

○강대식 위원 그렇겠지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왜냐하면 지금 방위력개선비 1조는 단년도로, 몇 년 안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계속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강대식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그런 성격의 예산들이어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강대식 위원 그렇겠지요, 복지니까.

○황희 위원 실장님, 방위력개선 때문에 국방비 예산이 지금 66조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그러니까 제가 예산의 성격을 말씀드린 겁니다.

○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성격만 얘기하면 무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66조까지 올라왔어요. 거기에 한 1%, 2%, 10%씩만 올려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국방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방 방위력에 매우 도움이 되고 전투력과 생존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라고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셨어야지.

○강대식 위원 맞지, 맞지. 그렇지.

○부승찬 위원 인건비를 방위력개선비로 바꿔요.

○강대식 위원 이게 안 되면 방위력이 안 올라가는데 그래. 이것은 실질적인……

○부승찬 위원 아니, 인간은 전투력 아니예요? 무기 아닌가? 맞잖아.

○강대식 위원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성일종 사람이 전투력의 1번이지.

○강대식 위원 좀 전에 부승찬 위원님이 모두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하고 임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게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사, 복지 다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이 바쁘시니까 내가 정리를 좀 할게요.

○강대식 위원 정리합시다.

○소위원장 성일종 예산소위 위원장님이 예산을 다루시면서 다른 방위비 개선 쪽에서 조금 줄여 가지고 이쪽으로 전용할, 이렇게 대체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강대식 위원 목 자체가 완전 달라서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같은 비슷비슷한 것끼리는 이것 빼서 이리로 넣으면 되는데 완전 저거를 갖다가 이리로 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소위원장 성일종 아니, 하여튼.

제가 주문하는 사항 알았지요, 실장님?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실장님도 인사발령 받은 지가 어제인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사실 이 예산을 새로 다 봐야 될 거예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소위가 열리니까 기재부를 설득할 때 우리가 이쪽에서 이만큼 줄여서 이쪽으로 보낼 테니 해 달라고 그러는 게 더 논리적으로 예산의 큰 증가가 없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나를 검토를 첫 번째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다섯 개 정도 얘기를 하셨지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소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지금 초급 소위들 지원하는 게 안 되고 있잖아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예.

○소위원장 성일종 작년에 내가 해서 올려서 이미 한 게 있어. 그런데 여기 우선 학군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를 좀 줘야, 지금 미달되고 있잖아요. 이게 초급이 일단은 머릿수는 채워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게 240억인가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24억입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24억 이것도 앞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에 조금 더 줄 수 있으면 지원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여섯 개 할 때 앞으로 꺼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반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긴급한 것부터 우리가 해결하고 중기 과제, 장기 과제는 용역한다든지 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열어서 좀 더 하기로 하고, 이것을 정리를 해 주면 위원님들 몇 분이 상의를 해서 또 우리가 부총리도 만나고 담당 국장도 내 방에 불러서 예산실장, 차관 다 불러 가지고 내 방에서 이것을 다시 토론해서 받아 달라 요청을 할 테니까 정리를 해서 오세요. 그게 효율적이에요. 아셨지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임종득 위원 끝내시지요.

○소위원장 성일종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군 복지 개선 대책에 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을 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군 복지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국방 예산 심사 및 예결위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강대식 위원장님의 역할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잘 다뤄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과 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회합을 갖고 그리고 기재부하고 특별히 더 회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지적 사항들 잘 반영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별도로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대식 강선영 박선원 부승찬 성일종 임종득 황희

○청가 위원(2인)

김병주 황명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서덕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김성준

계획예산관직무대리 김종덕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인사기획관 이인구

보건복지관직무대리 김진성

군수관리관직무대리 양성태

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